

감쪽같이 사라지는 차량들 어디로 갔나?

광주 매년 100여대 도난...부품별 분해 판매 팬 추적 어려워 7시간만에 4대 분실 신고한 한 렌터카 업체 "판매업체 의심" 해외 밀반출·고의 도난신고 등 수법 다양...경찰 예방 고심

광주 도심 곳곳에서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하룻밤 사이에 렌터카 업체의 차량 4대가 없어지기도 했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차량 자체가 사라져 찾지 못한 차량 도난범죄는 2016년 122건(검거 84건), 2017년 90건(78건), 2018년 83건(67건) 등으로 매년 100건 안팎의 차량 도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차량 절도범을 잡지 못한 건수도 66건에 이른다.

지난달 28일에는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 사이 광주의 A렌터카 업체 소유 SM6 승용차 4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분실된 차량들은 업체에서 고객들에게 대여해준 차량들로, 분실된 장소도 제각각이었다.

A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0시

광주시 북구 오차동을 시작으로 29일 새벽 2시 영암, 새벽 4시 충주, 새벽 5시 광주시 남구 월산동 등에서 고객에게 대여해준 차량들이 차례로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충주에서 사라진 차량 안에는 고객이 놔둔 현금 700만원과 신용카드, 옷가지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A업체는 해당 차량을 판매한 경기도 수원시의 B업체를 의심하고 있다. A업체 측은 7시간 만에 B업체에서 구매한 차량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업체는 총 50대의 차량을 렌터카로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40대는 B업체에서 구입한 차량이다.

A업체 측은 "렌터카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입한 차량에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둔다. B업체가 아직 GPS기기를 제거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GPS를 추적해 보조기를 이용해 가려간 것으로 의심된다"

며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B업체로부터 구입한 다른 차량까지 없어질까봐 고객들에게 차량 대어를 중단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B업체 측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A업체 차량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없으며, 이에 대해 할 말도 없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현금 등을 모두 보상해 주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 업계 관계자는 "전문 차량 절도범들이 차량을 훔쳐 부품별로 분해해 판매할 경우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문가들의 경우 2-3시간이면 차량 1대를 완벽히 분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해마다 끊이지 않는 차량 도난 범죄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차량 부품 분해 후 해외 밀반출, 고의 도난 신고, 대포차 운행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훔친 차량을 분해해 해외로 부품만 밀수출하는 유형이 많

았으나, 최근엔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이 많은 차량을 고의로 저수지 등지에 빠트리 고 도난 신고를 하거나, 채무 관계에 의해 대포차로 운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보조 스마트키를 차량에 넣어 두는 등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도난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잠긴 차량의 문을 도구 등을 이용해 강제로 열거나 유리창을 깨서 차량을 훔치는 형태의 범행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도난방지장치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스마트키의 맹점을 이용한 차량 도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도난방지 장치가 해마다 발전하고 있지만 스스로 단속하지 않으면 최첨단 장치로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며 "차량에서 내릴 때마다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는 지, 차량문을 잘 잠겼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3명 사상 군산 주점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

술값 시비 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원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

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방화 직후 출입문을 알루미늄 봉으로 봉쇄해 손님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 횡감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공범 논란 동생은 무죄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며 잔인하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

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김성수와 공동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 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

/연합뉴스

독성 강한 한약재 '초오' 넣고 명태국 끓여 먹은 70대 숨져

70대 남성이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끓여 먹은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병원을 찾은 A(75)씨가 진료 중 의식을 잃고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었는데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한약재인 초오를 복용해 왔었다.

A씨는 전날 명태국에 초오를 넣어 끓여 먹었다가 몸 상태가 이상해져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오는 독성이 많은 열성(熱性) 약재로, 심복통·관절통 등의 증상에 쓰이며 조선 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이용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나무숲 피서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4일, 담양 죽녹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진녹색의 대나무 숲을 거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소비자원 "살구씨 다량 섭취시 시안화 중독 위험"

식품·주사제 불법유통 주의 살구씨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함께 온라인에서 살구씨 식품과 주사제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살구씨를 다량으

로 섭취하면 시안화 중독으로 인한 구토나 간 손상, 혼수상태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나 '행인'으로 검색한 결과 화

장품 등을 제외하고 13개 품목 40개 제품이 식품이나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식품은 39개였는데 통씨 15개, 캡슐 5개, 두부 형태로 만든 제품 4개 등이었고 주사제 형태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8개 제품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소비자원이 실제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당 1개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살구씨는 아미그달린 성분으로 인한 시안화 중독 위험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호주 암 연구소 등에서 살구씨의 아미그달린 성분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신 보고 비웃는다며 행인 폭행한 20대 여성

광주광산경찰은 4일 인형뽑기를 하는 자신을 비웃었다며 지나가던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A(여·25)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10

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암동의 한 주점에 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앞에 설치된 인형뽑기를 하던 중 "왜 비웃느냐"며 B(23)씨의 목살을 잡고 손톱으로 핏줄을 찌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지나가는 B씨 일행이 인형뽑기를 하는 나를 비웃는 듯 해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과속방지턱 왜 빠르게 넘어!"...횡감에 대리가사 폭행

○...과속방지턱을 수 차례나 빠르게 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에게 발길질을 한 취객들이 경찰서행.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붙잡힌 박모(39)씨와 김모(53)씨는 이날 새벽 3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시속 40-50km의 다소 빠른 속도로 수차례 과속방지턱을 넘는 대리운전기사 A(35)씨에게 차

를 세우도록 한 뒤 "평화공원에 물어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했다는 것.

○...박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음주 후 속이 좋지 않아 대리운전기사에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서행을 부탁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방지턱을 넘어 너무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해상화재,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 SGI서울보증, AXA AXA, AIG, NH농협손해보험